

[TV]

TV 3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대작 드라마 전성시대 온다

제작비 수백억원대 '로비스트' '태왕사신기' 등 방송 준비 끝

영화에 이어 TV 드라마에서도 '규모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는 이 같은 대작 드라마의 앞날에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SBS는 120억 원 규모의 '로비스트'(극본 주찬욱·최완규, 연출 이현직·사진)를, MBC는 450억 원 규모의 '태왕사신기'(극본 송기나, 연출 김중혁)를 나란히 9월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드라마 모두 연속극이 아닌 24부작 기획, 한국 드라마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잇따라 경신되는 것이다. 제작비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미니시리즈 드라마

의 등장은 개별 드라마의 운명을 떠나 방송가 제작 환경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로비스트'와 '태왕사신기'는 영화 못지 않은 영상미와 스케일을 표방한다. 특히 그동안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케일 면에서 이들 두 드라마는 막대한 제작비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술력과 방대한 해외 로케이션 촬영 등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던 드라마의 제작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있다. 송일국, 장진영 주연의 '로비스트'는 화려한 삶의 이면에 비정한 승부사의 모습



을 지닌 채 살아가는 로비스트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 한류 스타 배용준이 주연을 맡아 아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태왕사신기'는 공개전의 일대기에 사신(四神)의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극 판타지. 제주도 세트장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이 드라마는 판타지를 구현하기 위해 CG가 전체 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12, '반말' 방송사고

생방송 중 앵커 질문에 취재기자 '왜', '몰라'로 답해

생방송 뉴스 도중 기자의 반말이 전파를 타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2일 낮 12시 KBS 1TV '뉴스12' 방송 도중 대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소식을 보도하기 위해 KBS 대전방송총국을 연결했다가 기자의 반말이 방송을 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방송에서 대전 지역 이 모 앵커는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와 그제 노사가 극적인 협상타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라고 전한 뒤 "취재자가 연결합니다"

라고 김 모 기자를 불렀다. 그러자 "왜?"라는 김 기자의 대답이 돌아왔고 이어 이 앵커가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뭐니까?"라고 묻자 김 기자는 "몰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시내버스 노사 협상 장면이 목적인 채로 몇 초간 방송됐다. 마치 앵커의 질문에 기자가 반말로 대답한 것 같은 오해가 일어났다는 말이 밝혀진 것. 이 김 모 기자가 방송이 연결된 상태인 줄 모르고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방송에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Living TV and TBN 광고. Living TV: 세상 속으로 (오후 1시30분).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 MHz) with program schedule.

케이블·위성TV 3월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드라마,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BBC 광고: 광주광역시 방송. Includes program schedule and website information.